



# 평범속 성장으로 기술 수출

## 책임·자율의 인간존중 경영

### 회사연혁

- 1970. 12. 그라비아잉크 제조를 위한 일본 동양 잉크제조(주)와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계약 인가
- 1971. 3. 삼양잉크제조(주) 설립
- 1971. 8. 그라비아잉크 생산개시
- 1971. 9. 외국인 투자기업체 등록
- 1974. 8. 대한색소(주) 인수 생산개시 부산영업소 개설
- 1975. 1. 금속잉크 생산개시
- 1977. 4. 식관용 내면니스, 전사나염용잉크 추가생산
- 1980. 7. 삼성페인트·잉크제조(주) 합병
- 1984. 6. 성형플라스틱용 도료 기술도입계약
- 1989. 8. D.I관용 도료 기술도입계약
- 1991. 6. 용제형 아크릴수지계 감압접착제 기술도입 계약
- 1991. 11. 용제형 우레탄수지, 라미네이트용 인쇄잉크, 액체용기용 수성인쇄잉크 기술도입 계약
- 1992. 3. 본 수웨이드조 피혁모양도료, 라바산 특수감촉도료 기술도입계약 허가
- 1993. 2. DR CAN AND DRD CAN에 사용하는 도료 및 잉크, 박리와니스, 접착

### 와니스 기술도입계약

- 1994. 9. 알루미늄증착 종이에 사용하는 Anchor Coat제, Primer Coat제, 건조제에 사용하는 그라비아인쇄잉크 및 와니스 기술도입 계약
- 1998. 3. 나염잉크용 바인더 T-Coat-4130 기술도입계약
- 1999. 3. 우레탄잉크 기술도입계약
- 1999. 11. 오프셋UV잉크 기술도입 계약
- 2000. 7. ISO9001 인증획득

### 회사 개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있거나 차별화된 제품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잉크업계를 이끌어오고 있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가 내년 3월에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삼영잉크는 일본 도요잉크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적인 경영을 내세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삼영잉크는 크게 금속인쇄용 도료 및 잉크, 그라비아 잉크, UV잉크, 점착제, 플라스틱, 기타



▲ 삼영인쇄 부문별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측에서 두번째가 장형순 사장)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인쇄용 도료 및 잉크는 1976년부터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로 일본 도요와 기술제휴로 3피스(잡판, 식판용, CAP용 등), 2피스(음료 CAN)의 외면 색상에서 뛰어난 발색 효과와 망점의 재현성, WET인쇄의 적합성, 가공성, 약품성, 내광성, 내마찰성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음료판에서도 처음으로 수성화와 수성, 유성겸용 잉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고농도, 고속인쇄에 탁월하다.

또한 국내 금속인쇄시장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피스와 금속인쇄를 개발 생산하여 열풍건조방식(자외선 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인쇄방식의 혁신과 환경친화적인 미래지향성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수성화가 완료되어 있는 이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것만 해결하면 100% 공급이 가능하다.

국내 처음으로 그라비아잉크를 제조 판매한 삼영은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삼영인쇄는 연포장을 기초로 중포장에서 건장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산업 각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라비아 잉크를 선진기술과 국내 기술을 접목시켜 그라비아 잉크업계를 주도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 사업부문 역시 환경위생 안정성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능과 안정된 제품, 사용하기 쉬운 잉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위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기계, 처리, 가공, 제판 등 잉크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공



동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1969년 미국에서 카톤인쇄에 사용화된 것이 실용화의 시초인 UV경화형 잉크는 1971년 일본에서 금속인쇄, 셀(seal)인쇄에 사용되기 시작한 후 국내에 도입됐다.

UV잉크는 속경화성, 무용제, 파우더레스를 특징으로 하고 작업환경의 개선, 납기단축, 재고절감, 설비공간축소 등의 장점이 있어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점착제는 용도에 따라 1액형, 2액형으로 분류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특성 또한 다양하다.

점착제 역시 수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용, 스티커용, 양면용, 보호용, 특수용으로 나뉘

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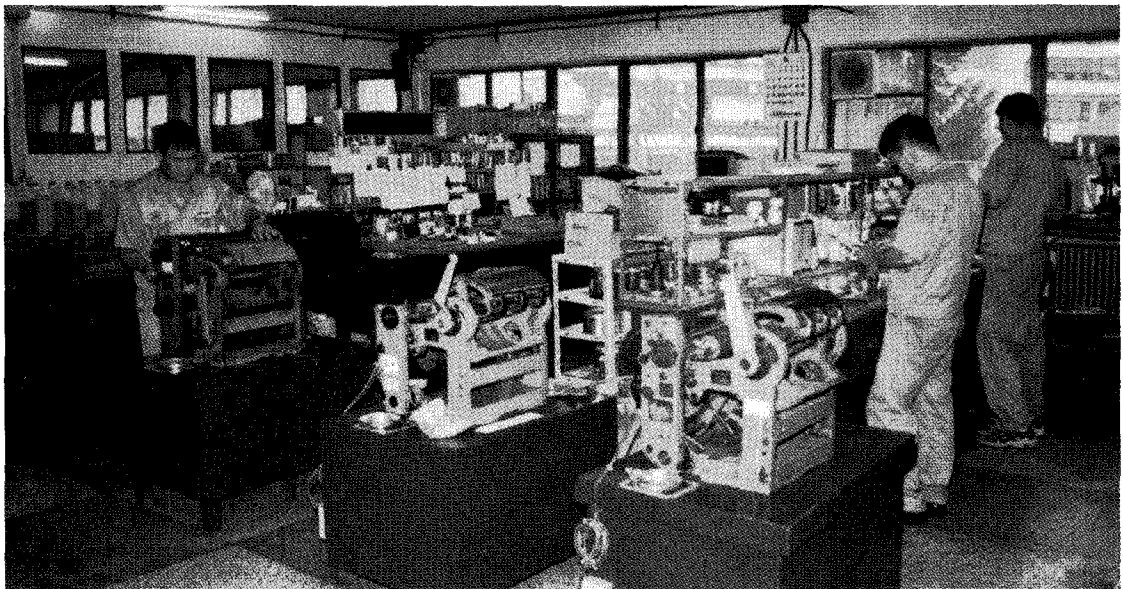
플라스틱은 PS, ABS, PVC, PC용 도료와 이에 사용되는 신나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나의 경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구분하고 있다.

### 운영전반

삼영잉크는 인간존중 경영으로 자기실현을 이룩하고 회사 발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부문별 경영책임, 안전 및 환경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목표로는 자기혁신을 통한 도약, 감동경영을 세우고 품질보증체제 확립, 수익성중심의 목표관리, 인재육성과 정보화, 사원의 복리증진을 과제로 삼아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있다.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종업계 최고의 시설



▲ 신제품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개발실



▲ 그라비아인크로 인쇄된 제품들

과 혜택부여에 노력하고 밝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선하고 있다.

전임직원이 가족이라는 의식하에 뭉쳐 있어서 인지 노조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삼영인크는 15개의 친목씨클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처럼 누구나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대화하여 의견일치를 만드는 것이 삼영인크의 경영방법이며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 130명의 직원 가운데 37명이 연구인력으로 앞으로 더욱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선진외국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가동중이다.

장 사장은 "저는 종업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슴으로써 섬기고 있습니다. 성격과 개성이 모두 다른 사람과 업무 등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실제 삼영인크의 경우 대부분 장기근속자일 만큼 이직률이 낮으며 정년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탁하는 등 인력문제에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외국사와 합작일 경우 간섭을 받는 일이 있는데 삼영인크의 경우 철저한 자본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고 상장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영업 측면에서도 외국 선진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발전속도가 늦은 국내업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안타까우며, 국내업체간 경쟁은 가능한 하지 않고 후발업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선발업체로서의 어려움은 아무 말할 수가 없다.

"삼영인크는 평범한 것이 자랑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종업원 만족을 통해 감동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장 사장은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을 통해 신뢰감이 두터워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 삼영인크는 로열티를 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시작할 당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불했던 로열티를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판도료 기술을 중국과 동남아 수출하고 있다.

항상 공부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경영진처럼 역사를 지닌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삼영인크 전직원의 가슴에 내포되어 있다.

내년 3월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삼영인크는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했던 것처럼 포장업계 발전에 일조하는 삼영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